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충*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 - #50 Victoneta Ave. Brgy. Potrero. Malabon City 1475</p> <p>학교 규모는 학교내에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다 모여있는 것 같았으며 어학당과 더불어 여러 건물이 있음. 전반적 분위기는 학생들이 매우 쾌활하며 장난끼도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있는 것 같음.</p>
수업	<p>수업내용 - 일대일 수업은 개인의 수준에 맞게 나누어져서 문법, 말하기, 쓰기를 중점적으로 배움, 소그룹이나 대그룹 수업은 Activity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그날 수업 주제에 맞게끔 놀이를 통한 공부를 하거나 인터뷰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한다.</p> <p>분반여부 - 처음 도착하면 개인별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기 위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반은 말하기, 쓰기를 구분해 나누어 지는데 반에 따라서 교재의 차이가 있었다. 반은 크게 4개의 반으로 나뉘어진다.</p> <p>강사 - 일대일, 소그룹, 대그룹 수업에따라 강사는 달라지며, 몇몇 무책임한 일대일 선생님들을 제외하면 다들 열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신다.</p> <p>과제 - 과제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에세이를 쓰고 나머지 요일에는 그주에 있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각 강사마다 일정량의 과제를 내준다. 또한 마지막주에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발표수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주가 가장 정신없었고 바빴던 주였다.</p> <p>수업 전반적인 면에서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없었으며, 어학연수 기간을 6~8주정도로 조정했으면 좀 더 어학연수의 취지에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p>

Activity	<p>1. 민도르 섬(12/30 ~ 1/1) : 3500페소, 관광명소인 민도르 섬으로 여행을 가며, 각종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좋았다. 저녁에는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고 들었지만 기상악조건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볼 수 없었다.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는 액티비티였다.</p> <p>2. 따가이따이 화산섬(1/15) : 1700페소, 말을 타고 정상까지 이동하며, 정상의 경치가 좋아서 사진을 남기기 좋은 명소이다.</p> <p>3. 팍상한 폭포(1/15) : 2000페소, 유명 관광지 중 한곳인 폭포로 가며, 옷이 다 젖기 때문에 여벌의 옷을 준비해야한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하계에 간다면 모르겠지만 동계에 마닐라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더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않아도 될 듯하다. 다만 기숙사 주변이나 마닐라 시내에서 음식점을 간다면 모기가 많아서 모기퇴치약 같은 것은 준비해가면 유용할 것 같다. 또한 물을 잘못 마셔서 흔히 말하는 물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물은 웬만해선 편의점같은 곳에서 사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전	안전에 대해 다들 항상 주의를 하고 만전을 기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것은 못 느꼈고, 우버택시나 그랩을 이용하여 돌아다니면 크게 위험한 것 없이 마닐라 시내나 명소들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
숙소	생각보다 숙소 시설이 매우 쾌적해서 놀랐다.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물도 잘나오고 특히 민감한 에어컨도 잘 나와서 불편함이 없었다. 통금시간은 10시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시정도까지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방과 후 마닐라 시내등을 돌아다니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다.
식사	전반적으로 필리핀 음식이 짜거나 달아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학교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서 한동안은 식당 밥만 먹었다.
교통	인력거, 트라이시클, 지프니 등등 여러 교통수단이 있다. 자신이 이용하는방법만 안다면 지프니가 이동하기에 가장 좋지만 귀찮거나 좀 먼거리를 이동한다고 한다면 우버택시나 그랩을 이용하여 택시를 기숙사 앞으로 호출해서 이동하는 것이 가격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200000	현지 식사비용
기념품	100000	귀국 시 선물용
기타	150000	간식 등
합계	45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현지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모기약, 그리고 빨래를 말길시에 수건이나 양말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손빨래를 하거나 여분을 많이 챙겨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토익, 토익스피킹에 응시할 예정이고 학교측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어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 자부심도 생길 정도였다. 아쉬운 점은 연수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 4주는 적응을 할만 하니까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고, 6~8주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많은 후배들이 국제교류처에서 진행하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많이 알게 되어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고 연수기간 내내 많이 신경써주신 관계자 분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출발전



첫 sm north 갔을때



민도르섬에서



보니파시오



소그룹 멤버들과

아쿠아리움에서